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Travel

Another Face of **HongKong**

■ 글·사진/임동근 기자, 협찬/여행박사, 홍콩관광진흥청

홍콩의 또 다른 얼굴, 란타우 · 라마

여행자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같은 화려한 야경과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상점들, 그리고 미각을 사로잡는 먹거리 등은 홍콩 여행을 대표한다. 그러나 홍콩을 자주 드나든 여행자들에게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식상하다 못해 지겹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고층 빌딩 즐비한 도심을 벗어나보는 것은 어떨까? 조금만 벗어나면 홍콩의 또 다른 묘미를 발견하고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홍콩 역에서 통청선(Tung Chung Line) MTR(지하철)에 올랐다. 평일 출근 시간을 조금 넘긴, 도심 외곽으로 향하는 지하철의 내부는 한결 여유롭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과 관광객, 연인들이 디즈니랜드나 옹핑(Ngong Ping) 고원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여유가 한껏 묻어나는 표정들이다. 도심을 빠져나간 MTR의 창밖으로 푸른 바다와 초록빛 섬들이 스쳐 지난다. 서니베이(Sunny Bay) 역에서 디즈니랜드 방문객들이 MTR을 갈아탔고, 드디어 중착역인 통청 역에서 MTR이 멈춰섰다.

관광객들을 따라 걸음을 옮기자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5.7km 거리를 잇는 케이블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케이블카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옹핑 스카이라일 터미널의 매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관광객들의 꼬리를 따라 5분 정도 줄을 서자 드디어 케이블카에 오를 수 있었다.



오색 매력 품은 옹핑 고원

터미널을 출발한 케이블카는 이내 푸른 바다 위를 지나고 있다. 수면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남중국해는 더욱 장엄해지고 섬과 작은 어촌이 이루는 풍경은 더욱 낭만적으로 다가왔다. 케이블을 떠받치는 지지대를 지나며 케이블카가 덜컹거릴 때마다 관광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즐거운 비명을 쏟아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케이블카 아래로는 온통 초록빛의 산이 자리하고 있다. 길고 하얀 산책로에서는 걸어서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손을 흔들어댄다. 이윽고 케이블카가 봉우리를 넘어서자 하얀색의 옹핑 마을 뒤로 검은색 청동좌불상(Tian Tan Buddha Statue)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리를 건너 옹핑마을로 들어섰다. 말끔한 모습의 중국식 건물들이 포린사와 청동좌불상으로 향하는 길 양쪽에 도열하듯 들어서 있다. 각 건물에는 중국식 차를 맛볼 수 있는, 정원이 예쁜 옹핑 집(Ngong Ping Tea House)을 비롯해 정통 중국요리 식당인 ‘홍콩 딜라이트(Hong Kong Delights)’, 일본 우동과 라면을 맛볼 수 있는 ‘젠 누들 카페(Zen Noodle Cafe)’ 등 식당과 카페, 기념품점들이 있다. 관광객들은 식당 내부나 야외 식탁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즐긴다. 젠 누들 카페 앞에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옹핑 마을을 지나 걸음을 옮기자 오른쪽 산 정상에 무게 250t, 높이 34m의 세계 최대 청동좌불상이 나타났다. 좌불상까지 이어진 계단의 입구에서는 관광객들이 갖가지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268개에 달하는 가파른 계단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했다. 커다란 연꽃 위에 올라앉은 부처 둘레로는 신과 불사신을 표현한 청동상 8개가 도열해 있다. 다시 불상 옆으로 난 계단을 올라서자 옹핑 마을과 포린사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부처는 오른손을 들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막고, 왼손을 무릎 위에 펼쳐 보이며 평화를 기원하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와 란타우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포린사(Po Lin Monastery)로 향했다. 싱싱한 초록빛의 나무들이 햇살을 가려주는 진입로를 지나 절 입구에 도착하자 뽀얀 연기가 앞을 가리고 있다. 방문객들이 피운 수많은 향들이 타 들어가며 입구를 자욱하게 만들고 있었다. 향을 피운 사람들은 거대한 청동좌불상과 금빛 지붕 화려한 포린사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곤 했다.



서정적인 감성의 타이오 수상마을

옹핑 마을에서 출발한 버스가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타이오(Tai O) 수상마을.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보이는 작고 오래된 집들과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내음이 마음을 절로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공원처럼 깔끔하게 꾸며놓은 인근 방파제에서는 관광객들이 한가롭게 걸음을 옮기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마을로 진입하는 길인 윈온가(永安街)로 들어서자 건어물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온다. 길 양쪽의 건어물 가게 좌판에는 오징어, 쥐포는 물론 생전 처음 보는 말린 해산물과 과일, 야채들이 진열돼 있다. 윈온가의 끄트머리에서 왼쪽으로 돌아 푸른색의 작은 현수교(大涌行人橋)가 나타나고, 조그만 어선과 관광 보트가 현수교 주변과 아래를 지나간다. 현수교 양쪽의 운하를 따라 정박한 어선들과 바다에 기둥을 세운 오래돼 보이는 수상가옥들이 이루는 풍경이 정겹게 다가왔다.

다리를 건너서면 관광객들로 더욱 북적이는 건어물 시장이 이어지고, 다양한 먹을거리가 내뿜는 냄새가 입 안에 침이 고이게 한다. 커다란 상어를 말려 거꾸로 매달아두기도 하고, 바다에서 곧바로 잡아온 듯 싱싱해 보이는 생선과 조개류,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새우를 발효시켜 만든 장 등 흥미로운 볼거리가 눈을 즐겁게 한다.

이곳의 명물이라는 오징어를 구워 파는 할아버지의 좌판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시장 끝머리에 자리를 차지한 할아버지의 계란빵은 구워내는 족족 팔려나간다. 재래시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자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졌다. 길을 따라서는 작은 컨테이너를 놓아둔 것처럼 보이는 은색의 작은 집들이 따닥따닥 옆구리를 붙인 채 들어서 있다. 허리를 굽혀야 할 것 같은 작은 출입문과 그 옆에 붙은 조그만 창문을 보니 소인국에라도 온 듯하다. 창문 안쪽으로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도 들여다보인다. 길에서 종종 만나는 작은 사당들과 야채를 키우는 텃밭 등 이곳의 모든 것은 작고 소박하기만 하다.

현수교 옆에서 1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관광 보트에 올랐다. 경쾌하게 엔진 소리를 울리며 운하 안쪽으로 향하자 수상가옥들이 더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초에 물을 주는 아낙네,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드는 어린이, 베란다에 부착해놓은 사다리를 통해 보트에 오르는 어부 등 주민들의 일상이 여과 없이 전해져온다. 낡고 허름한 가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시간이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연과의 동화, 람마 섬 트레킹

홍콩 섬의 센트럴 4번 부두에서 람마() 섬으로 향하는 페리에 올랐다. 페리에는 등산복이나 가벼운 옷차림을 한 관광객들이 띄엄띄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이 뿌연 아침 안개 속으로 숨어 들어갈 무렵 정면으로 화물선과 섬들이 희미한 형체를 드러냈다. 페리는 30여 분 만에 람마 섬의 웅슈이완(榕樹灣) 부두에 도착했다.

페리 선착장과 섬을 잇는 다리에는 환영 인사라도 하는 듯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다리를 따라 양 쪽으로는 자전거들이 뺑뺑하게 세워져 있다. 해산물 식당이 늘어선 거리와 주택가를 지나자 이내 아름답기가 늘어선 평온한 산책로가 가볍게 발길을 이끈다. 자동차가 없는 이곳에서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다.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자전거를 이용해 한적한 길을 지났다.

싱그러운 초록빛 나무와 풀 향기가 기운을 돋우는 트레킹 코스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10분 정도 걸었을 무렵 그림처럼 예쁜 홍싱예(洪聖爺) 해변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울의 바닷가는 적막했지만 간간이 지나는 등반객들은 해변에 시선을 고정할 채 걸음을 멈추곤 했다. 해변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꼬챙이에 닭고기, 햄 등을 꽂아 숯불에 구우며 흥겨운 대화를 나눈다.

홍싱예 해변을 지나자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가 시작됐다. 작은 관목과 풀이 무성한 오르막이 이어지다 오른쪽으로 푸른 바다가 시원스레 내려다보이는 내리막과 오르막이 반복됐다. 산책로는 가파르지 않아 어린이도, 허리 구부정한 할아버지도 천천히 풍광을 즐기며 산행을 할 수 있다.



한참만에 도착한 전망 정자에서는 등반객들이 목을 축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자 뒤편의 언덕길로 걸어가자 물빛이 투명해 바닥이 비치는 바다와 해변이 내려다보인다. 해변 뒤로는 섬에서 길어온 육지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듯하다.

다시 약간의 내리막과 오르막이 이어지다 길은 내리막이 연속됐다. 가슴을 뻥뻥 주던 바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키 큰 나무가 하늘을 가릴 듯한 운치 있는 길이 섬 반대쪽 속구완(索古灣)으로 안내하고 있다. 어느 순간 숲길이 사라지고, 다시 시야에는 바다 풍경이 자리를 잡았다. 고깃배가 어지럽게 널린 속구완 항구의 모습이다.

산을 거의 내려와 속구완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작은 동굴이 나타났다. 일명 ‘가미카제 동굴’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숨어 있던 곳이다. 패전 후 남아 있던 몇몇이 집단 자살을 했다는 것으로 시커먼 안쪽이 으스스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었다. 향이 피어오르는 틴하우(天后) 사원을 지나 속구완 부두로 향하는 길에는 해산물 전문 식당들이 즐비하다. 바다를 향해 난 탁자를 차지한 여행객들은 게, 가재, 새우, 조개류, 생선 등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를 즐긴다. 약 2시간의 트레킹 이후에 맛보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는 람마 섬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Trendy Street SOHO

트렌디한 매력의 거리

소호는 홍콩에서 가장 트렌디한 공간 중 하나이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과 바는 하나하나가 예쁘고 아기자기한 미술품처럼 꾸며져 있다. 관광객들은 청가나 가리가 내려다보이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맛깔스런 향기를 전하는 요리들을 탐닉한다.



Information

날씨와 시차 계절에 상관없는 사계절 여행지이지만 9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선선해서 여행하기에 가장 좋다. 겨울 평균 기온은 15°C이며, 여름은 27~33°C이다. 겨울에는 갑작스레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따뜻한 점퍼나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무더운 여름에도 건물 내부와 교통수단에 에어컨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긴팔 옷을 꼭 가져가도록 한다.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늦다.

통화와 환율 홍콩달러(HK\$)를 사용하며, 1홍콩달러는 2월 중순 현재 약 124원이다.

전기와 전화 홍콩에서는 200/220볼트를 사용하므로 한국과 같다. 주로 구멍이 3개인 콘센트를 사용하므로 멀티전기플러그를 준비하거나 호텔이나 숙소에서 빌리도록 한다. 국제전화코드는 852이며,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001-82를 누른 후 지역번호 앞이나 핸드폰 번호의 맨 앞에 붙는 '0'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팁 호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홍콩달러 정도의 팁을 주면 되고, 레스토랑에서는 10%의 서비스료를 받고 있다. 택시의 경우 집 한 개당 5홍콩달러의 서비스료를 받는다.

여/행/정/보

웅핑 360 가격표(2008년 9월 30일까지)

단위 : 홍콩달러

티켓	평일			일요일 및 휴일		
	성인	어린이(3~11세)	경로(65세 이상)	성인	어린이	경로
케이블카 왕복+부처와의 산책+원숭이 설화극장	145	75	108	155	80	118
케이블카 왕복	88	45	68	98	50	78
케이블카 편도	58	28	45	68	35	55
부처와의 산책	35	18	28	35	18	28
원숭이 설화극장	35	18	28	35	18	28

란타우 섬 웅핑 공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청 역에서 웅핑 스카이라일(웅핑 360)을 이용해야 한다. 통청 역까지는 도심의 홍콩 역(또는 센트럴 역)에서 MTR로 30분 정도 걸린다. 교통카드인 옥토퍼스 카드 소지자는 성인 기준 18달러, 일반 편도는 20.5달러이다. 웅핑 스카이라일은 평일 10~18시, 토요일 10~18시 30분, 일요일 9~18시 30분에 운행하며, 요

금은 웅핑 마을에서의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람마 섬 람마 섬으로 가는 페리는 센트럴 4번 부두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30분까지 25분~1시간 간격, 웅슈이완에서는 오전 6시 2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20분~1시간 간격으로 운항한다. 페리는 35분이 걸리는 일반 페리와 25분이 소요되는 고속 페리가 있다. 요금은 평일 일반 페리가 성인 11.8홍콩달러(고속 15.6홍콩달러), 어린이(12세 미만) 및 65세 이상 5.5홍콩달러(고속 8홍콩달러), 일요일 및 휴일은 성인 16.8홍콩달러(고속 21.6홍콩달러), 어린이 및 65세 이상 7홍콩달러(고속 10홍콩달러)이다.

센트럴 4번 부두와 속쿠완을 잇는 페리는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시간 20분~2시간 4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40분 정도가 걸리며, 요금은 평일 성인 기준 14.8홍콩달러, 주말 19.6홍콩달러이다.

레인보 레스토랑 람마 섬 속쿠완에 있는 해산물 전문 식당으로 이곳에만 식당 4개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다. 람마 섬 트레킹을 마친 이들은 꼭 한 번 들르는 곳이다. 바다가재,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 생선 등 싱싱한 해산물을 다양한 양념과 조리법으로 만든 맛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해산물 요리의 가격은 50~360홍콩달러이며, 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인기 메뉴로는 꿀과 후추 소스 게(1마리 120홍콩달러), 치즈를 얹어 구운 바다가재(150홍콩달러), 오징어 구이(70홍콩달러) 등이 있다. 미리 예약하면 센트럴 또는 침사추이-속쿠완 구간의 무료 교통편을 제공한다.

문의 2982 - 8100, www.rainbowrest.com.hk

란콰이퐁(Lan Kwai Fong) 소호 인근에 있는 홍콩 섬 최대의 유흥가로 식당, 바, 클럽 등이 많은 외국인 여행자와 젊은이의 거리이다. 소호의 예쁜 레스토랑과 바에서 저녁 식사를 즐긴 후, 이곳의 다양한 술집에서 맥주나 양주를 마시는 여행자들이 많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해피아워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다른 나라 여행자와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IFC몰 4층 옥상 공원 IFC 빌딩은 2003년 완공된 홍콩의 랜드마크이자 88층의 최고층 빌딩이다. 센트럴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IFC몰, 원 IFC 빌딩, 포시즌스호텔과 연결되어 있으며 센트럴 역에서 페리 선착장으로 가는 방향의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 IFC몰 4층의 옥상 공원은 최근 젊은이들로부터 각광받는 장소로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바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센트럴, 미드 레벨, 카오룽 반도의 전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저녁에는 벤치에 앉아 편안하게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트레킹 명소

화려한 고층 빌딩이 너무 각인된 탓에 홍콩과 자연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홍콩에는 푸른 자연 속을 거닐 수 있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마련돼 있다. 홍콩관광진흥청이 추천하는 코스들을 소개한다.

드래곤스 백(Dragon's Back) 홍콩 섬 남동부의 석오(石澳)에는 타임지가 아시아 최고로 꼽은 트레킹 코스가 있다. ‘드래곤 백’은 가장 매력적인 단기 트레킹 코스로 해발 284m의 석오 봉우리 주변을 지나는 길이다. 코스를 지나며 해안 절벽과 석오 해안, 남중국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구불거리는 트레킹 코스는 총 4.5km로 2~3시간이면 완주할 수 있다. MTR 아일랜드라인(Island Line)의 샤우케이완 역 A3 출구로 나와 9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피크서클워크(The Peak Circle Walk) 홍콩의 유명 관광지인 빅토리아 피크에서 출발하는 3.5km 구간으로 나무와 키 작은 관목들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홍콩의 아름다운 도심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비교적 쉬운 코스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데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홍콩 홍콩 고원에서 반야섬경 산책로(Wisdom Trail)를 따라 이봉애 네이팜산(彌勒山)를 거쳐 홍콩 마을로 돌아오는 코스와 해발 934m의 란타우 봉우리를 찍고 되돌아와 다시 반야섬경 산책로를 지나는 코스가 있다. 첫 번째 코스는 2시간, 두 번째는 3시간 정도가 걸린다.

타이룽완(大浪灣) 카오룽 반도 동부의 팍탐충(北潭涌)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나타나는 팍탐아우(北潭凹)에서 출발해 동쪽의 한틴완(鹹田灣)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사이쿱 이스트 코스라고도 불린다.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해변과 호수, 초록빛 섬들, 남중국해의 풍광을 즐기며 가볍게 지날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은 카오룽 반도를 가로지르는 맥리호스 트레일(MacLehose Trail)의 일부 구간으로 평탄한 길로 시작해 약간의 언덕을 오르는 코스로 이어진다. 사이쿱 타운에서 94번 버스를 타거나, 일요일에는 MTR 다이아몬드힐(Diamond Hill) 역에서 96R 버스를 탄 후 팍탐아우에서 내리면 된다. 총 6km의 구간으로 3시간 정도면 완주할 수 있다.

쇼핑과 레스토랑 품질, 'QTS' 마크로 확인하세요!

홍콩은 쇼핑과 식도락의 천국이다. 다양한 제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전 세계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혹시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가짜는 아닐까, 레스토랑의 위생이나 서비스는 나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홍콩관광진흥청이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광 품질 인증제도인 QTS(Quality Tourism Service)마크를 매장이나 레스토랑에서 확인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QTS 마크는 매년 독자적인 기술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환경상태, 종업원, 친절도, 제품의 품질, 운영상태 등 모든 항목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곳에만 비치되는 것이다. 마크가 부여된 후에는 손님을 가장한 평가단이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 및 평가하게 하고 있다.

중국 전통 의상과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상하이 탕(Shanghai Tang)을 비롯해 키와 베이커리(Kee Wah Bakery Limited), 보석 전문점 주대복(周大福) 등의 상점과 웨스트빌라(West Villa Restaurant), 취항빌리지(Tsui Hang Village Restaurant) 등의 레스토랑같이 QTS 마크가 있는 곳은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를 할 수 있는 종업원이 상주하고 있다. QTS 마크는 상점 출입구의 유리창에 붙어 있고, 내부에도 비치되어 있다.

홍콩관광진흥청은 웹사이트(www.qtshk.com)를 통해 QTS 마크가 부여된 상점과 레스토랑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PDA에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top](#)